

빅3 시대 마침표 찍은 스무살 새 황제



▲ 스페인의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Wimbledon 우승컵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Wimbledon

그의 우승은 약 20년 동안 이어져 온 남자 테니스 '빅3'의 시대를 끝내는 사건이기도 하다. 조코비치는 메이저 대회 통산 최다 23회 우승 기록을 보유한 '최강자'다. 라파엘 나달(스페인), 로저 페더러(은퇴·스위스)와 빅3로 군림해 왔다. 하지만 데뷔 이후 2년 만에 최연소 마스터스1000 시리즈 대회 우승에 이어 최연소 연말 랭킹 1위, 최연소 세계 1위의 기록을 줄줄이 쓴 알카라스는 결국 이날 우승으로 빅3의 마지막 흔적을 말끔히 지웠다.

역대 가장 어린 나이에 세계랭킹 1위에 오르며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아 온 카를로스 알카라스(20·스페인)가 베테랑 노바크 조코비치(36·세르비아)를 잡고 생애 첫 Wimbledon 남자단식 패권을 움켜쥐었다.

알카라스는 16일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조코비치를 4시간42분 만에 3-2(1-6 7-6<8-6> 6-1 3-6 6-4)로 제압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상금은 235만 파운드(약 265만 달러)다.

이날 승리로 지난 5월 프랑스오픈 4강에서 당한 1-3 패배를 되갚은 알카라스는 조코비치와의 상대 전적에서 2승1패로 앞서 나갔다. 지난해 US오픈에서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일군 알카라스는 메이저 우승컵 개수도 2개로 늘렸다.

베이스라인에서 때리는 강력한 스트로크와 상대의 허를 찌르는 네트플레이, 코트 전역을 아우르는 운동 능력을 겸비한 알카라스에 대해 테니스계는 '조코비치와 페더러, 나달의 강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알카라스는 "솔직히 테니스의 새 세대가 아닌 나를 위해 승리했다. 조코비치를 이기고 Wimbledon에서 우승하는 건 테니스를 시작했을 때부터 꿈꿔 온 일이었다"고 기뻐했다. 조코비치는 "알카라스는 우리가 오랜 기간 나달을 통해 봤던 스페인 황소와도 같은 놀라운 투쟁심을 갖고 있다"면서 "여기에 수비와 적응력 등 내 강점으로 꼽히던 것들을 가진 매우 완벽한 선수"라고 평가했다.

세계 3위 리디아 고, 7벌타 '황당'

여자골프 세계랭킹 3위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무려 19승을 올린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골프 규칙을 착각해 7벌타를 받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 LPGA투어 다나 오픈에서 벌타 부과 소식에 당황한 모습의 리디아 고. 사진=AFP/연합뉴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디아고는 전날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LPGA투어 다나 오픈(총상금 175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7오버파 78타를 적어냈다. 리디아고는 이날 이븐파 71타를 쳤지만, 벌타가 무려 7타가 부과돼 이렇게 높은 타수를 제출해야 했다.

당시 하일랜드 메도스GC에는 폭우가 쏟아져 코스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다. 고심 끝에 대회조직위원회는 마지막 날 1번홀과 10번홀에 프리퍼드라이(preferred lies·공 옮기는 것 허용)를 적용하기로 했다. 프리퍼드라이는 공이 놓인 자리에서 도저히 경기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황일 때 적용하는 규칙으로 볼을 마크한 뒤 집어 올리고(lift) 닦아서(clean) 옮겨 놓고(place) 치는 것을 말한다.

발단은 리디아 고의 착각에서 비롯됐다. 그는 코스 전체에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3·7·9번홀에서 공을 옮겨 놓고 쳤다. 그리고 11번홀에서도 공을 집어 들었다. 그런데 뭔가 김새가 이상했는지 경기위원을 불러 자초

지종을 물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착각을 한 것을 알게 됐다. 결국 리디아고는 앞서 세 홀에서 공을 다른 곳에 옮겨 놓고 친 규칙 위반에 대해 각각 2벌타씩 6벌타, 11번 홀에서는 경기위원의 지시에 따라 볼을 원래 있던 자리에 놓고 쳤기에 무단으로 볼을 집어 올린 데 대한 벌타 1타를 받았다.

졸지에 7타가 더해진 리디아고는 4라운드 합계 성적 1오버파 285타가 되면서 공동 65위로 추락했다.

리디아 고가 모든 홀에서 '프리퍼드라이'가 적용된다고 착각한 것은 아마 전날 3라운드 때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3라운드 때는 경기 중간에도 비가 많이 내려 모든 홀에서 '프리퍼드라이'가 적용됐다.

다정한마리

GRAND OPENING

★ 여름 보양식
한방보양식 닭백숙

조리시간 40분 소요 미리 예약 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동대문 \$45.99

닭 한마리 칼국수

닭 한마리 + 떡 사리 + 칼국수 (2-3인분)

*** 증성에서 닭 한마리 + 떡사리 + 마지막에 칼국수를 곁여먹는 맛있고 재미있는 닭 한마리! ***

런치 스페셜
쌈밥 정식

보쌈, 소불고기, 제육볶음
닭불고기, 오징어볶음

황태구이 백반, 코다리조림 백반
열무국수, 콩국수

닭곰탕
 닭계장
 초계국수

전복백숙

닭도리탕

닭칼국수

소불고기

제육볶음

오징어볶음

코다리조림

황태구이

아귀찜

황기새싹인삼백숙

안동찜닭

녹두전

로스편채
 등갈비볶음지김치찜

7850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714.735.9283

월요일 Closed